



가금산물 자체품질평가제, 오리전량등급판정 도입의 선두주자인 평가관리처 전승엽 차장

고객홍보처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축산물등급에 대한 제도 및 작업장 관리, 운영 등을 담당하는 축평원의 핵심부서인 평가관리처가 있다. 현재 닭·계란·오리 등급판정 운용 및 개선기준 발굴과 기준보완에 대한 사항, 자체품질평가사 양성교육에 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평가사업본부의 주무차장인 전승엽 차장을 kape인 이야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전승엽 차장은 축산계열 학과를 졸업하고 입사 당시에는 등급판정제도의 초기단계로 새로이 시작되는 업무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자긍심으로 인생에 대한 보람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축평원을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 후에 열악한 현장 환경에 난감한 적도 많았다고 한다. 그는 “한번은 현장 작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등급판정을 하는 예냉실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예냉실에 갇힌 적이 있었다. 당시 1인 작업장으로 현장에는 다른 직원이 없어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으로 30분정도 예냉실의 문을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여 가까스로 나올 수 있었다.”며 당시의 아찔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등급판정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큰 고충이었다. 현재는 고객만족에 노력하고 있어 고객과의 다툼이 크게 줄었지만 그 당시에는 유통업자들의 억지와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이제는 등급판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판정으로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로 먼저 다가가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다.

1994년 3월 입사하여 어느덧 올해로 24년차. 평가관리처에 근무하는 동안 그는 오리전량등급판정과 가금산물 자체품질평가제 도입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 등급판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품질평가사의 인력은 부족하여 기관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가금산물 자체품질평가제를 추진하게 되었다. 전승엽 차장은 “현재 오리전량등급판정처럼 닭과 계란 등급판정에도 지속적 전량등급판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한다.



다시는 살충제 계란과 같은 파동이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기관도 정보의 내실을 다져 자체품질평가제 도입으로 관리기관의 첫발이 되어 축산 교육 전문 기관으로 발전하며 축평원이 독립적인 교육시설(강의시설, 숙박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한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평가관리처는 다른 처에 비해 더욱더 분주하다. 특히 이번같이 10일간의 긴 연휴를 앞둔 명절은 더욱더 그러하다. 현장 작업장 등급판정 관련 업무에 대해서 사전 사후 조치를 위하여 그는 복무점검을 나간다. 소·돼지·닭·계란·오리·벌꿀에 대한 작업장 휴일근무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직원들의 등급판정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명절성수기 평가관리처는 동분서주하고 있다.

앞으로 그는 축산물의 등급이 브랜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율품목에 있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등급은 기본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가공산물 제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는 “축평원이 축산물의 품질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전직원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전승엽 차장은 “얼마전 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우리기관에서 살충제 계란을 조회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 네이버 검색순위 1위까지 올랐었다. 다시는 살충제 계란과 같은 파동이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기관도 정보의 내실을 다져 자체품질평가제 도입으로 관리기관의 첫발이 되어 축산 교육 전문 기관으로 발전하며 축평원이 독립적인 교육시설(강의시설, 숙박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한다. 